

바깥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뇌라!

25면에서 계속

랑이 못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변덕쟁이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리고도 고질병이 들거나 병을 길게 앓는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산...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까. 당연히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일가에 붙이고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맡음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 사랑입니다.

식물도 감정이 있는지요?

문 나무나 풀 따위같이 감각이 없는 것을 무정물이라고 해서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의 법문을 읽다 보면 나무나 풀도 생명이 있고 이 세상 만물 만생이 다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요?

답 왜 감정이 없겠어요? 이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인데요, 산에 다니다 보니깐요. 손가락도 잘라질 정도로 말아들이는 식물이 있어요. 정말이예요.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스치는 순간에 이파리가 이만큼 넓었는데 그게 그냥 파르르르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상하다.' 이라고선 그냥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잎이 그냥 딱 말리면서 그거를 물고 영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으니까 그게 놓아지는데 보니까 그 나무때기가 은근히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약초요. 약초들도 풀이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공 자리에 놓으라고 그러는 것이, 만약에 주인공 자리에 놓아서 내 마음이 큰 바다로 이루어진다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서 이 정수봉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물을 모든 만민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비가 오면 내리듯이... 그러면 조그만 풀도 다 먹어요. 요만한 풀도요.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벌써 생각이 있어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말이예요. 흙이 모자라면 그것이 그냥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서 흙에 닿게끔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극하게 아파서 죽게 되니까 풀을 손으로 뜯으면서 '너, 나 좀 살려 줘. 나 죽겠어.' 하고 애원을 했대요. 이렇게 죽어 넘어졌는데 썩지 않는 생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의 풀들이 다 그냥 얼굴을 내밀고선 자기 액을 빼 주더라는 거요. 자기 이파리 하나씩 빼서 입에다 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깨고서는 그냥 살아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 보고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풀들은 다 생각이 있고 다 사람이

있고 의리와 도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또 약하게 쓰면 약한 업이 그대로, 자기가 요다음 생에 나올 때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았대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물이 아닌 식물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버드나무를 잘랐는데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도끼로 한 번 땅 치니까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지 못하고는 돌아왔는데 꿈에 '약 좀 발라 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네 생명만 중하고 내 생명은 중하지 않나?'고 하면서... 그걸 만약에 잘랐더라면 그 식구 중에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 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채식하는 게 있고 육식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게 채식하는 거는 인간으로 진화가 빠르고, 육식하는 거, 남의 생명을 마구 잡아먹는 거는 인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죠. 이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무의 세계인 정신세계를 알려면 관 속에 들어가 봐야 안다. 죽어 봐야 안다. 죽어 봐야 아니까 죽어라. 여러분이 다 죽어라 이런 소리에요. '죽는 사이가 없이 죽어라.' 이 소리지, 아주 죽으라는 게 아니냐.

따로따로 나눠진 것 같아...
문 절에 가 보면 부처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진 것 같고 절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용왕재니 산신재니 수륙재니 하는 것을 지내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독교처럼 하나님 하나만 믿으면 쉬워 텐데 이것저것 따로따로 나눠진 것 같아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 물부처가 따로 있고 불부처가 따로 있고 흙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잘나잘나 움직여주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탈없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

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 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틀 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三世心)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틀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뇌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못 믿는다면 믿을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그렇기에 자기 생명선, 이틀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 다 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만. 그런데 깨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뇌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알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열법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열법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 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달아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 지 두 분도 아니예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태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요!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를

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태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믿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의식들이 미워요

문 스님, 저는 이 마음공부가 너무 좋고 꼭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젊다 보니깐 이런저런 유혹에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렇게 한동안을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하던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저를 오직 한곳으로만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러저러 해매게 하는 제 안의 의식들이 너무 미워요.

답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증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

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에 올 선업 악업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은 지금 나오고 미래에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자체의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 속에 그 악업 선업의 증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요. 과거의 업 지은 것도 없애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지.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그 통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뚫어지듯, 뚫어서 그 나무의 속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았으면 알을 까서 또 생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으면 알을 깔 수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합니다.

자생증생들이, 즉 말하자면 유합된 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든인을 앓을 때 증생들의 병이 다 나야 내 병이 낫는다고 믿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생증생들을 다스리면서, 내 자생증생들이 병이 낫으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지, 자생증생들이 건강하면 내가 왜 병이 남을까? 자생증생들이 다 병이 나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인 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제각기 나는 나서는 너, 이렇게 판단한 그 애수라장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도 애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뚫어놓고 쪼쪼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뚫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 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판매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맡기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어떤 거를 낚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하면서 생활해 가지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뇌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운법계-모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되어 되어있다.

- 1. 금운법계-불문승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르,**
*미와선이 압록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얘기한다.
- 2. 모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얘기함.
-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승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 이 부분은 양광관란, 만리무운, 음악명쾌 희경열렬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극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 A Time = 60분 *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회**
* 2006 스페인국 국립무용 초청 *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소회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오)

이번호는 칼라입니다